



대한민국의 전통식품 명인을 찾는다!

- 2026년 '대한민국식품명인' 공모 실시(신청기간: 5월11일~6월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명인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선정 공모를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고추장 등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의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199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88명의 전통식품 명인이 활동 중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적은 숫자인 만큼 식품분야 장인으로서 높은 명예를 갖게 되며,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관련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시도에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시도에서 총 37명이 신청했으며, 최종 7명의 명인이 지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설명회와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고, 지역의 숨은 명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2026년 공모 신청기간과 지방정부의 검토기간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 신청기간/지방정부검토기간 : ('22~'24) 평균 27일/19일 → ('25) 49/25 → ('26) 50/31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가장 한국적인 맛을 가진 전통식품이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의 근간이다”라고 하면서, “우수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적극 발굴·지정하여 K-푸드가 세계인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승욱 (044-201-2131)
	그린바이오산업팀	담당자	사무관	정성문 (044-201-2143)

□ 목 적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서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해당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으로 지정('94~)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

□ 자격 요건(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실현 가능한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종사한 자

□ 평가 항목

-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25점), 기능보유자의 정통성(20), 경력·활동사항(20), 계승·발전 필요성·보호가치(25), 산업성(5), 윤리성(5)

□ 지정 절차

- 지정계획 공고(농식품부) → 신청(신청자→시·도) → 접수 및 사실조사, 추천(시·도→농식품부) → 적합성 검토(농진청) → 지정 심의·의결(식품산업진흥심의회) → 식품명인 지정 공고, 지정서 교부(농식품부)

□ 지정 현황

- '94년부터 '25년까지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 106명을 지정하였으며, 지정 해제 등으로 인해 현재 총 88명 활동 중

* (품목) 전통주 25, 장류 13, 떡한과류 10, 김치류 7, 차류 7, 엿류 6, 식초 5, 육류 3, 인삼 2, 기타 10
 (지역) 서울 1, 부산 1, 광주 3, 경기 18, 강원 5, 충북 5, 충남 8, 전북 10, 전남 16, 경북 9, 경남 9, 제주 3